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YahooFinance: 트럼프, 파월 의장을 "실패자"라 부르며 금리 인하 재차 요구
- CNBC: 트럼프 경제 분야 지지율, 전체 재임 기간 중 최저치

[미국 금융]

- CNBC: 미국 리스크로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 미 부유층 늘어
- Bloomberg: 무역전쟁에 금값은 최고치, 달러는 하락

[미 관세 여파]

- Bloomberg: 한국 수출 둔화, 관세에 대한 글로벌 경고 신호 보내
- Bloomberg: 한국 대표단, 미 행정부와 이번 주 관세 협상
- WSJ: 관세 상황에서 나이키 신발 제작 자동화 쉽지 않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달러 약세와 금값 급등으로 럭셔리 브랜드에도 부담
- WSJ: 아마존, 우려와 달리 무역전쟁에 잘 대비
- Bloomberg: 에어비앤비, 숙박 총액 표시 의무화
- Bloomberg: 테슬라, 저가형 모델 출시 연기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YahooFinance: Trump again asks Fed's Powell to lower rates, calling him a 'major loser'

트럼프, 파월 의장을 "실패자"라 부르며 금리 인하 재차 요구

- 트럼프는 오늘 월요일 오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준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다.
- 그는 파월 의장이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파월 의장을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패자"라 불렀다.
- 트럼프는 유럽이 이미 7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 파월 의장이 너무 늦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그는 또한 인플레 우려를 일축하면서 현재 에너지 가격과 식품비가 인하되고 있어 실제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CNBC: Trump's approval rating on the economy drops to lowest of his presidential career, CNBC Survey finds

트럼프 경제 분야 지지율, 전체 재임 기간 중 최저치

- 트럼프의 관세, 인플레, 정부 지출 처리 관련한 광범위한 불만족으로 그의 경제 정책 지지율이 1기 행정부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임 기간 중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 응답자 1천 명 중에 업무 처리에 44%가 지지, 51%는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지하지 않은 비율이 지난 2020년 퇴임 때보다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43%가 지지하고 55%는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CNBC: More rich Americans are opening Swiss bank accounts fearing U.S. risks

미국 리스크로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 미 부유층 늘어

- 스위스 은행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부유층 미국인들이 계좌 개설에 관심이 증가했으며 실제 이를 통해 은행들의 비즈니스 거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 현재 스위스는 중립적인 정치 상황, 강한 통화, 안정된 경제, 신뢰가 가는 법적 시스템으로 투자에 각광을 받고 있다.
- 수십 년 전만 해도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은 탈세 의혹과 연관된 이미지가 있었으나, 오늘날 와서는 규제도 엄격하며 널리 사용되고 세금 보고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CNBC 기사

Bloomberg: Gold Hits Record as Dollar Sags and Trade War Concerns Persist

무역전쟁에 금값은 최고치, 달러는 하락

- 달러가 지난 2023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값은 온스당 3천 4백 불을 상회하고 있다.
- 트럼프는 금리 하락을 강조하면서 연준 파월 의장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 시키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연준의 독립적인 활동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파월 해임은 중앙은행 독립성의 원칙을 해치며 미국 금융 정책을 정치화할 위협이 이어 시장에 불안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동반해 떨어지고 금 등 안전 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관세 여파]

Bloomberg: Shrinking Korea Exports Send Global Warning on Trump Tariffs

한국 수출 둔화, 관세에 대한 글로벌 경고 신호 보내

-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핵심 국가 중에 하나로 글로벌 교역의 바로미터 가 될 수 있는 국가다. 한국의 4월 무역 데이터 예비치를 보면 해외 선적 규모가 작년 동월에 비해 5.2% 감소했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도 14.3%, 3.4% 각각 줄었다.
-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4월 초중반의 경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줄었고 반도체는 10.7% 그리고 철강 수출은 8.7% 감소했다.

Bloomberg: US, South Korea Set for Trade Negotiation as Tariffs Hit Economy

한국 대표단, 미 행정부와 이번 주 관세 협상

-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수출이 줄고 있는 한국의 대표단들은 이번 주 미국의 행정부 관련 부처 수장들을 만나 관세 협상을 하게 된다.
- 미국의 연방 재무장관과 USTR은 한국의 재경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을 이번 주 목요일 오전 8시 워싱턴 DC에서 만나게 된다.
- “한국 정부는 조용하고 진지한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 해결책을 서로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밝혔다.

WSJ: Why It's So Difficult for Robots to Make Your Nike Sneakers

관세 상황에서 나이키 신발 제작 자동화 쉽지 않아

- 트럼프는 비용이 낮은 아시아 국가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기업들이 제조 시설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그러나 미국의 높은 노동 비용으로 인해 기업들은 인력 대신 자동화로 이를 대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의 경우 이런 자동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예컨대 나이키 신발의 경우 로봇은 신발 제작에 필요한 부드러우며 부풀어 오르고 늘어나는 부품의 제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신발은 온도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수축되는데 이를 자동화가 쉽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 Weak Dollar and Record Gold Price Are More Bad News for Luxury Stocks

달러 약세와 금값 급등으로 럭셔리 브랜드에도 부담

- 달러와 위안화가 유로 대비 각각 약 5% 하락하고 금값이 온스당 지난주에 3,300달러를 이미 돌파하면서, 유럽 럭셔리 브랜드들은 원가 상승과 가격 인상 압박에 직면했다.
- 이들 브랜드는 제조비용은 유로로 부담하고, 매출은 달러와 위안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화 약세는 이들에게 불리하다.
- 또한 금값 급등은 명품 시계 및 보석 제조업체들의 원가 상승을 초래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유럽 명품 브랜드들은 달러 약세와 잇따른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에르메스는 5월 1일부터 미국 내 가격 인상을 예고했으며, 샤넬과 디올 같은 상위 브랜드는 영향이 적겠지만, 구찌 등 중위권 브랜드는 수요 위축이 우려된다.

WSJ: Amazon Is Better Prepared for the Trade War Than Investors Think 아마존, 우려와 달리 무역전쟁에 잘 대비

- 아마존은 글로벌 물류망과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타국으로 생산·재고 이동이 가능하며, 중국산 제품 주문을 일부 취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규모 구매력으로 공급업체에 가격 압력을 가할 수 있어 경쟁사 대비 가격 상승을 억제할 여력도 있다.
- 그러나 아마존 전체 판매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3자 판매자들은 대부분 중국 제조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담으로 가격 인상이나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다.
-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AWS, 디지털 광고,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생활용품 부문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기둔화에도 타격이 덜한 사업 포트폴리오 덕분에 다른 기업들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Bloomberg: Airbnb to Show Fees in Price Display to Comply With FTC Rule

에어비앤비, 숙박 총액 표시 의무화

- 에어비앤비는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에 따라, 청소비와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숙박 총액을 검색 결과에서 기본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 FTC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통과된 규정에 따라, 공연 티켓·단기 숙박업체 등이 필수 수수료를 포함한 총가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 에어비앤비는 2023년 미국 등 일부 시장에서 총액 표시 전환 버튼을 도입했으며, 이후 30만 개 가까운 숙소에서 청소비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esla to Delay Production of Cheaper EVs, Reuters Reports 테슬라, 저가형 모델 출시 연기

-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 Y 생산을 당초 올해 상반기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연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도 2022년 75%에서 2024년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 이번 화요일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는 저가형 모델 전략과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논란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금값 3,400달러 첫 돌파...골드만삭스 "내년 4,000달러 가능성" 트럼프의 '파월 사임' 압박도 영향 미친 듯 엔/달러 환율은 140엔대...작년 9월 이후 최저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독일 국채 가격도 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21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새로 썼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월물 금 선물 가격은 이날 한국시간 오후 3시 45분 기준 전장 대비 2.27% 오른 온스당 3,404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3,400달러선을 넘어섰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3,393.3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국시간 오후 3시 58분 기준 전장 대비 1.96% 오른 3,391.9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